도서관목록에서 폭소노미 적용의 의미와 한계*

Meaning and Limitations of Folksonomy in Library Cataloging

노 지 현(Jee-Hyun Rho)**

〈 목 차 〉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폭소노미의 배경과 의미
1. 폭소노미의 배경
2. 폭소노미의 의미
Ⅲ. 북미 도서관계의 입장과 사례
1. 폭소노미에 대한 학계의 입장
2. 도서관계에서의 적용 사례
3. 유용성 검증 노력과 제언
Ⅳ. 한국 도서관계의 고민과 과제
Ⅴ. 논의를 마치며

초 록

이 연구는 폭소노미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보다 근원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 우리 도서관의 실정에 보다 적합한 폭소노미에 대한 접근 및 수용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근거하여, (1) 폭소노미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에 내재된 철학적 의미를 도서관목록의 전통적 의미에 견주면서 살펴보고, 이어 (2) 폭소노미를 바라보는 북미 문헌정보학계의 관점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더불어 (3) 폭소노미의 적용 결과를 둘러싼 북미 도서관 현장에서의 유용성 논의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4) 폭소노미의 수용에 앞서 우리 도서관계가 고민해야할 과제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폭소노미, 폭소노미 태그, 소셜 태깅, 사회적 태깅, 사회적 분류, 도서관목록, 도서관 편목업무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make a comprehensive inquiry into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Folksonomy, and to explore how to make full use of Folksonomy in library cataloging.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as follows : (1) how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Folksonomy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principles of library cataloging, (2) what the viewpoint of LIS scholars toward Folksonomy are, and how North American libraries have customized Folksonomy for their catalogs. In addition, (3) usefulness of Folksonomy in library catalogs is thoroughly discussed. Based on these, (4) the final discussion includes strategies for Korean LIS scholars and library practitioners to consider when applying Folksonomy to Korea library contexts.

Keywords: Folksonomy, Folksonomy Tags, Social Tagging, Social Classification, Library Catalogs, Library Cataloging

* 이 논문은 200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rho@pusan.ac.kr)
• 접수일: 2009년 11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9년 11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9년 12월 26일

www.kci.go.kr

Ⅰ. 논의를 시작하며

2004년 7월에 북미에서 처음 등장한 폭소노미(folksonomy)의 개념과 원리는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문헌정보학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공 학자들과 현장 사서들의 관심은 정보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점으로서 폭소노미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사서의 전문적이며 배타적인 업무로 인식되어 온 자료조직 영역에 폭소노미의 원리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관점과 탐색행태를 도서관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폭소노미에 대한 도서관계의 이러한 관심은 2008년 1월에 미의회도서관의 '서지통정의 미래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이 주도하여 이용자들의 탐색행태에 관한 데이터를 도서관목록의 제작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어 왔는데,[1] 최근 들어서는 학자들과 사서들의 논의에 도서관시스템 벤더들이 가세하면서 폭소노미를 서지 DB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폭소노미가 이렇듯 북미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도서관목록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탐색도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있다. 특히, 폭소노미의 적용이 형식과 규칙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 기존의 주제명표목과 분류데이터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폭소노미에 대한 그들의 논의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폭소노미의 도서관 적용과 관련하여 아직은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견해가 양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폭소노미를 도입했던 도서관 현장에서도 성급한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보고되고 있는 문제점은 주로 탐색도구로서 폭소노미 태그의 유용성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다 심각한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폭소노미의 기본 원리가 도서관목록에 내재된 전통과 이론에 상충하는 데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그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다. 폭소노미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목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급진적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폭소노미의 도서관 현장 적용에 보다 신중해야한다는 보수적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듯 북미에서조차 유용성을 둘러싼 논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소노미를 대하는 우리 학계와 도서관계의 시각에는 성급함이 배어있다. 물론, 도서관목록의 내용적 품질에 있어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우리 도서관계에서 정보자원의 내용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폭소노미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폭소노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조차 없이, 특히 우리 도서관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조차

1) Library of Congress 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 *On the Record : Report of the Library of Congress 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2008, p.37,
〈http://www.loc.gov/bibliographic-future/news/lcwg-ontherecord-jan08-final.pdf〉 [cited 2009. 8. 25].

www.kci.go.kr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도입을 서두르는 도서관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폭소노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도서관목록과 관련한 폭소노미의 의미에 대해 성찰보다는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우리 학계의 풍토 또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폭소노미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보다 근원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 우리 도서관의 실정에 보다 적합한 폭소노미에 대한 접근 및 수용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근거하여, 이글에서는 먼저 (1) 폭소노미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에 내재된 철학적 의미를 도서관목록의 전통적 의미에 견주면서 살펴보고, 이어 (2) 폭소노미를 바라보는 북미 문헌정보학계의 관점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3) 폭소노미의 적용 결과를 둘러싼 북미 도서관 현장에서의 유용성 논의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4) 폭소노미의 수용에 앞서 우리 도서관계가 고민해야할 과제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폭소노미의 본질과 의미를 근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폭소노미가 과연 우리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가늠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서관계에서 폭소노미를 보다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폭소노미의 배경과 의미

1. 폭소노미의 배경

2003년에 등장한 Delicious나 Flickr와 같은 소셜 북마킹(Social Bookmarking) 웹사이트는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웹자료에 키워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시스템의 원리는 이용자가 찾은 자료에 키워드를 남겨 놓고, 후에 이 자료를 다시 이용하고 싶을 때 그가 부여한 키워드를 탐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개인적인 탐색 경험에 근거하여 부여된 키워드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관련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관심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이런 와중에 대중에 의해 만들어져 부여된 이러한 키워드(태그)를 지칭하는 용어로 폭소노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이 용어를 만들어낸 Thomas Vander Wal은 폭소노미를 '자신이 훗날 이용하기 위해 정보객체에 자유롭게 부여한 태그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Wal은 키워드를 부여하는 행위가 개방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소노미를 social tagging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정보를 소비하는 개인이 특정 규칙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키워드를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www.kci.go.kr

나아가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정보에 대한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free tagging 또는 collaborative tagging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2] 이후 폭소노미는 "이용자가 생성한 메타데이터,"[3] "특정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부여한 태그의 집합체,"[4] "협력 태그에 의해 생성된 사회적 분류시스템,"[5] "사람들에 의한 일상적 분류법,"[6] 혹은 "대중의 협력과 공개된 태그를 기반으로 하는 新정보검색 방법론"[7] 등으로 정의되면서, "대중이 만든 태그를 이용하여 정보를 조직 혹은 체계화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폭소노미는 이렇듯 웹 이용자가 자신이 이해하고 해석한 의미를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웹자료에 덧붙여 놓은 결과로 오늘날의 웹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파생한 것이다. 이러한 폭소노미의 등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보수요자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는데 실패해 온 기존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이탈 현상"[8]이며,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 등에 따른 편견 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자신의 언어를 반영할 수 있게 된 민주적 시스템의 등장"[9]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입장을 반박하는 견해 또한 만만하지 않아, "체계적인 정보조직이 불가능한 웹 환경에서 안하는 것보다 나은 것(better than nothing)에 불과"하며[10] "극히 낮은 수준의 개념 분류"[11]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폭소노미가 갖는 의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하다 할지라도, 정보이용자의 관점을 시스템 구축에 여과 없이 반영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탐색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핵심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소노미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관점에서, 특히, 도서관에서 목록을 통해 추구해온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폭소노미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

2) Thomas Vander Wal, "Folksonomy coninage and definition," 〈http://vanderwal.net/folksonomy.html〉 [cited 2009. 9. 11]. 이외에도, 폭소노미는 user tagging, social indexing, social classification, ethno classification, distributed classification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3) Adam Mathes, "Folksonomies-cooperative classifica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shared metadata," 〈http://www.adammathes.com/academic/computer-mediated-communication/folksonomies.html〉 [cited 2009. 9. 11].

4) Peter J. Rolla, "User tags versus subject headings : Can user-supplied data improve subject access to library collection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53, No.3(July 2009), p.175.

5) Daniel H. Pink, "Folksonomy," *New York Times*(Dec. 11, 2005), 〈http://www.nytimes.com/2005/12/11/magazine/11ideas1-21.html〉 [cited 2009. 9. 11].

6) Jennifer Rowley & Richard Hartley, *Organizing knowledge : an introduction to managing to information*, 4th ed, Ashgate, 2008, pp.229-230.

7) Wikipedia, "Folksonomy," 〈http://en.wikipedia.org/wiki/Folksonomy〉 [cited 2009. 9. 11].

8) Emanuele Quintarelli, "Folksonomies : Power to the people," 〈http://www.iskoi.org/doc/folksonomies.htm〉 [cited 2009. 9. 11].

9) E. Kroski, "The hive mind : folksonomies and user-based tagging."

10) Clay Shirky, "Folksonomy," 〈http://www.corante.com/many/archives/2004/08/25/folksonomy.php〉 [cited 2009. 9. 11].

11) Darlene Ficher, "Intranet applications for tagging and folksonomies," *ONLINE*, Vol.30, No.3(2006), p.43.

www.kci.go.kr

2. 폭소노미의 의미

주지하다시피, 편목 사서들은 문헌에 나타난 핵심 내용을 주제명표목이나 색인어 혹은 분류기호 등으로 대체하여 제시해 왔다. 이 과정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서의 업무 중 가장 전문적인 영역이면서도 양적 확장과 질적 발전에 있어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편목업무의 이러한 한계를 직시한 문헌정보학자들은 일찍부터 편목과정에서 '사서'의 주관적인 관점보다는 '문헌' 자체와 '저자의 의도'를 중시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문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저자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문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한 후 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데 집중할 것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 중심적 접근법(document-oriented approach)은 문헌의 관리가 아닌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목록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문헌 자체보다는 문헌을 찾고자 할 때 이용자가 갖게 되는 질의(request-oriented approach)[12] 혹은 요구(user-oriented approach)[13]를 편목과정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도서관계 안팎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용자 중심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편목업무에 있어서 문헌을 이용하는 사람(이용자)과 그들의 요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들은 '문헌의 이용자가 누구'이며, '해당 문헌은 이용자의 어떠한 요구를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왜 해당 문헌을 이용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편목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문헌에 나타나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보다 탐색도구로서 목록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실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구비하고 있던 '문헌 중심적 접근법'이 사서들의 편목업무 수행에 수월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데 비해, '이용자 중심적 접근법'은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의 개발에 실패함으로써 이론적이며 개념적인 방법으로 남겨졌다.[14] 그 결과, 도서관 현장에서 편목사서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여전히 전통적인 문헌 중심적

12) 여기서 가장 중요시 된 개념은 '이용자들은 왜 이 문헌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 문헌에 대한 이용자 질의는 무엇인가', '이 문헌은 이용자의 어떤 질의를 만족시키는가' 등과 같이 정보를 찾는데 있어서 이용자들이 가지는 '질의'를 찾아내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3) User-oriented approach에서는 '나(사서)는 잠재적 이용자들이 이 문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나(사서)는 문헌과 이 문헌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 위해 어떠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등과 같이 이용자 요구에 대한 사서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4) 문헌보다는 이용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연구자들은 이용자 중심적 편목업무의 수행을 위해, "첫째, 문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둘째, 해당 문헌의 이용자와 그들의 요구를 분석한 후, 셋째, 이를 분류체계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에 있는 적절한 용어로 대체한다"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의 '문헌 중심적 접근법'에 비해 '이용자 요구 분석'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이용자 요구를 통제시스템에 존재하는 용어나 기호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1990년대 들어서면서 문헌정보학자들 사이에서 주제 분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이용자 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연구조차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www.kci.go.kr

접근법에 근거한 편목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15]

이러한 답보적 경향을 허물어 내면서 편목 업무에 '이용자 중심적 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서들의 오랜 숙원을 되살리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폭소노미였다. 웹 2.0의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태그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용자 중심적 목록'을 구현하고자 했던 그간의 욕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동안의 목록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실패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폭소노미는 문헌에 대한 이용자들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폭소노미는 정보자원에 대한 주제 접근을 개선하고 나아가 편목업무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약'으로 여겨지면서, 편목업무에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Weinberger는 폭소노미의 도입을 사서에 의해 배타적으로 주도되어 오던 편목업무에 있어서 '권위주의'가 타파되는 혁명적 사건으로 보면서, 이제 비로소 도서관목록이 '이용자 중심의 목록'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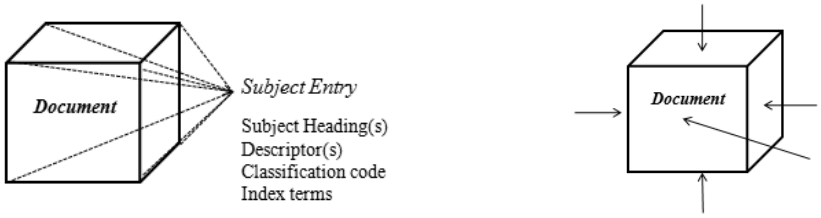
그러나 폭소노미의 개념과 원리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편목업무에 있어서 '이용자 중심적 접근법'을 주장해온 사서들이 제시하는 개념과 원리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문헌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왔던 목록의 주제어(subject entry)들과는 달리,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폭소노미는 문헌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즉, 사서들이 문헌에 부여하는 주제어가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면, 이용자들이 덧붙여 놓은 폭소노미는 지극히 세밀하고 주관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사서들은 문헌의 주제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문헌의 주제어를 엄격히 '통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이용자들이 작성한 폭소노미는 일상적 용어로 어떠한 통제도 없이 자유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용어의 계층이나 관계조차 고려하지 않고 단지 동일한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 내에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에 이른 용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Jens-Erik Mai, "Analysis in indexing : document and domain centered approach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vol.41(2005), pp.599-611 ; Raya Fidel, "User-centered index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5, No.8(1994), pp.572-576.

15)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관행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조직 교재를 보면, 분류기호나 주제어, 색인어의 생성 방법에 대해 "첫째,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고(이 과정에서 문헌의 어느 부분을, 어떠한 순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둘째, 분석한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를 선택한 후 셋째, 이들 용어를 분류체계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에 있는 적절한 기호나 통제어로 변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문헌과 저자의 언어에 철저히 의존하는 반면, 정작 이용자는 배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제분석과 관련하여 개발된 방법들(저자가 진술한 글의 목적이나 의도 등으로부터 주요 용어를 추출하는 'Purposive Methods', 전체의 내용을 본 후 핵심 개념을 추출하는 'Figure-Ground Method', 문헌에 등장한 용어의 빈도수에 근거하는 'Count References Method', 여러 개념을 대조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남는 용어를 주제어로 선택하는 'Appeal to Unity' 등) 또한 문헌에만 충실하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16) David Weinberger, "Tagging and why it matters"[Elain Peterson, "Beneath the metadata : some philosophical problems with Folksonomy," *D-Lib*, Vol.12, No.11(Nov. 2006)에서 재인용].

www.kci.go.kr



〈그림 1〉 주제어 생성에서 사서와 이용자의 관점

이처럼 폭소노미는 도서관목록이 오랜 기간 동안 근거해온 철학적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폭소노미는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다수 이용자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자 시도하고 하는 만큼, 문헌(또은 웹자료)이 갖는 주제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탐색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인 분류나 주제어 생성 방법은 학문이나 계통분류에 근거하여 모든 주제를 하나의 체계 아래 조직하는 것이다. 이는 'A=B' 또는 'A≠B'라는 절대적인 공식에 의존한 것으로써 모든 지식을 통제하여 계층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로 정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폭소노미는 '상대성'(relativism)과 '다양성'(diversity)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어 절대적 존재나 체계 대신, 이용자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폭소노미에서는 관점의 옳고 그른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객관적인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적 목적에 따라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한 데이터'라는 폭소노미 본래의 의미에서도 드러나듯이, 폭소노미는 태생적으로 문헌에 대한 적절한 표현(representation)이 될 수 없으며, 탐색어로서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북미의 문헌정보학자들과 도서관 사서들은 폭소노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폭소노미를 도서관목록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자.

Ⅲ. 북미 도서관계의 입장과 사례

1. 폭소노미에 대한 학계의 입장

북미의 도서관계에서 폭소노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경이다. 폭소노미를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고,[17] 이 회의를 전후하여 다수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

17) 17th ASIS&T Special Interest Group/Classification Research Workshop(Austin, TX : Nov. 4, 2006).

www.kci.go.kr

하면서부터이다.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도서관계의 일반 잡지에 폭소노미에 대한 소개가 실리면서, 사서들의 관심과 논의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폭소노미를 활용한 새로운 탐색도구를 개발하여 소개하는 단위 도서관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도서관이 소셜 북마킹 사이트와 협력하여 개발한 사례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북미의 도서관계에서 폭넓게 퍼져가고 있는 폭소노미 현상을 바라보는 문헌정보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폭소노미가 도서관목록의 기능을 향상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18)]

학자들의 긍정적 견해는 기존의 목록에서 통제어휘를 기반으로 하는 주제어가 갖는 한계를 폭소노미가 탐색의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다'는 기능적 시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용자들이 도서관목록에 태그를 덧붙이는 자발적 '참여' 행위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서 한 사람의 관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폭소노미를 활용할 때, 탐색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문헌을 뜻밖에 찾아내는 'serendipity'의 확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또한 학자들로 하여금 폭소노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북미의 다수 학자들 사이에서 폭소노미는 "도서관목록의 탐색 기능을 향상하고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긍정적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폭소노미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이다. 2007년에 실시된 한 조사는, 4천2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단 한번이라도 폭소노미 태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1/4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태깅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9)] 폭소노미에 대한 도서관이용자들의 이렇듯 커다란 관심과 참여는 문헌정보학자들의 심도있는 연구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한편, 폭소노미의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이유로 '도서관 목록의 진화'(evolution)를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폭소노미의 생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social tagging system이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로 폭소노미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서관목록 또한 '시대적 특성'에 걸맞은 새로운 체계로 진화해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20)] 이렇듯 폭소

18) Spiteri Louise F, "The use of folksonomies in public library catalogues," *Serials Librarian*, Vol.51, No.2(2006), pp.75-89 ; George Macgregor & Emma McCulloch, "Collaborative tagging as a knowledge organisation and resource discovery tool," *Library Review*, Vol.55, No.5(2006), pp.291-300 ; Xan Arch, "Creating the academic library folksonomy : put social tagging to work at your institution," *College & Research Library News*(Feb. 2007), pp.80-82 ; Candy Schwartz, "Thesauri and Facets and Tags, Oh My! : a look at three decades in subject analysis," *Library Trends*, Vol.56, No.4(Spring 2008), pp.830-842 등.

19) G. Smith, *Tagging : People-powered metadata for the social web*(New Riders, 2008), Tom Steele, "The mew cooperative cataloging," *Library Hi Tech*, Vol.27, No.1(2009), p.70에서 재인용.

20) Tamar Sadeh, "Time for a change : new approaches for a new generation of library users," *New Library World*, Vol.108, No.7/8(2007), pp.307-316. ; Melissa L. Rethlefsen, "Tegs help make libraries del.icio.us,"

www.kci.go.kr

노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도서관목록의 진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북미의 문헌정보학계에서 다수의 학자들이 폭소노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학자들의 긍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폭소노미의 근본적 한계와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의 우려는 대부분 폭소노미를 구성하는 단위 태그가 갖는 기능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령, 폭소노미의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폭소노미에서 동음이의어와 유사어의 처리가 불가능하며, 용어의 수준(상세성과 일반성)이나 표현 방식(단・복수, 명사・형용사・동사, 두문자어의 사용 등)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단점이자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21] 그들은 기존의 통제어휘가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고 유사어 중에서 우선어(preferred terms)를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폭소노미에서는 이러한 용어들 간의 관계가 전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탐색과정에서 효율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폭소노미에 대한 몇몇의 실험 결과에서 태그를 생성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모호한 어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분야 또는 주제별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주장 또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22]

이에 더해, 폭소노미의 성급한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폭소노미의 원래 의미와 기능이 제한적임을 언급하면서 도서관계가 폭소노미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폭소노미가 Web 2.0에서 추구하는 '개인화 서비스 기능'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제목록에 대한 보완이나 심지어 대체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3]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폭소노미 태그의 생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쉬운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태깅을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개인적 목적이 앞서는 만큼 공동을 위한 탐색 도구로 활용하는데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폭소노미의 도입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관점 또한 기대와 긍정적 시각 못지않게 커져가고 있는 것이 북미 문헌정보학계의 실정이다.

Library Journal, Vol.132, No.15(2007), pp.26-28. ; Xan Arch, "Creating the academic library folksonomy : put social tagging to work at your institution," *College & Research Library News*(Feb. 2007), pp.80-82 등.

21) Scott A. Golder & Bernardo A. Huberman, "Usage patterns of collaborative tagging system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2, No.2(2006), pp.198-208. ; Spiteri Louise F, "The structure and form of folksonomy tags : the road to the public library catalogue,"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ies*, Vol.26, No.3(2007), pp.13-25. ; Alireza Noruzi, "Folksonomies : why do we need controlled vocabulary?," *Webology*, Vol.4, No.2(2007).

22) Timme Bisgaard Munk & Kristian Mørk, "Folksonomy, the power low and the significance of the least effort," *Knowledge Organization*, Vol.34, No.1(2007), pp.16-33.

23) Elain Peterson, "Beneath the metadata : some philosophical problems with Folksonomy," *D-Lib*, Vol.12, No.11(Nov. 2006).

www.kci.go.kr

2. 도서관계에서의 적용 사례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미의 도서관계에서는 자체적으로 혹은 상업적 벤더와 협력하여 도서관 현장에 폭소노미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early adaptor들은 콘텐츠나 이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 Delicious나 flickr와 같은 웹 사이트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도서관에서의 폭소노미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적용 사례 중에는 Connotea나 CiteULike, HubMed 등과 같이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특정 분야 혹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국한하여 적용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도서관목록에 폭소노미의 원리를 접목한 사례들도 있다.[24] 이 글에서는 후자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해보고, 이러한 사례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폭소노미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관목록에 폭소노미를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2005년 여름에 펜실베이나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개발한 PennTags이 있다.[25] PennTags는 도서관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이 시스템은 동 대학의 학생·직원·교수들이 도서관의 OPAC과 E-resource, image collection 등에서 발견한 유용한 정보에 태그를 부여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자원에 태그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들은 서지레코드 아래에 있는 "Add to PennTags"를 통해 태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폭소노미는 서지정보와 함께 문헌에 대한 주요 탐색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PennTags에서는 동일한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이나 특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project)을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의 재조직과 공유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PennTags는 도서관목록에 폭소노미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단위도서관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최초의 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있다.

PennTags이 자관 이용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면, 외부의 이용자집단에 의해 생성된 폭소노미를 도서관목록에 적용한 사례도 있다. 2005년 8월에 출시된 LibraryThing은 '단행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셜 북마킹 사이트로서, 전 세계 690여 기관(도서관, 서점, 학술기관 등)에 소장된 자료를 검색한 후 이를 태깅하여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폭소노미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약 87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4천 4백만 자료에 대해 5천 6백만 태그를 생성하였을 정도로 LibraryThing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LibraryThing을 도서관목록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바로 'LibraryThing For Libraries'(LTFL)이다. LTFL을 이용할 경우 LibraryThing의 폭소노미를 도서관목록에 자동 반입할 수 있어,[26] LTFL은 출시와

24) 조재인은 Delicious나 Flickr와 같이 이용자나 컨텐츠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털형 폭소노미'와 구분하기 위해, OPAC 시스템의 검색 효율을 제고하는데 활용된 이러한 폭소노미를 'OPAC형 폭소노미'라 명명하고 있다[조재인, "학술정보서비스의 폭소노미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9. 12), p.100].

25) "about PennTags," 〈https://labs.library.upenn.edu/bookmarklets/tags.html〉 [cited 2009. 10. 12].

www.kci.go.kr

동시에 많은 도서관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LTFL은 북미 지역의 159개 도서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다.[27]

한편, 자관 이용자들을 통해 직접 폭소노미를 생성하고 싶지만, PennTags과 같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도서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는 SOPAC(Social OPAC)이 있다.[28] SOPAC은 소셜 북마킹 시스템인 Delicious 모듈을 활용하여 Drupal CMS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시스템으로서, 미국 코넷티컷주의 Darien Library를 시작으로 미시건주의 Ann Arbor District Library, 캘리포니아주의 Palos Verdes Library District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SOPAC은 LTFL과 달리 자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서지레코드에 직접 입력한 태그 정보만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SOPAC을 이용하는 도서관들은 폭소노미를 통해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이용자들이 생성한 태그를 토대로 도서관목록의 탐색 기능을 확장하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렇듯 폭소노미를 도서관목록에 적용함으로써 도서관목록이 추구해 온 탐색과 식별의 기능을 한층 업그레드하고, 도서관 자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데에 대해 북미의 도서관 사서들은 만족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하기 어려운 정적인 시스템'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오던 OPAC에 대한 인식이 폭소노미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어 '상호작용이 가능한 개방된 정보탐색 도구'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데에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29]

그렇다고 해서 폭소노미의 적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우려가 도서관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SOPAC을 이용하는 도서관들은 단위도서관 차원에서 다양한 태그 정보를 생성하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SOPAC을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목록에서 폭소노미 태그가 전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이 기술되어 있는 서지레코드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그들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폭소노미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적용 과정상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지

---

26) LTFL은 LibraryThing의 폭소노미를 도서관목록에 적용하기 위한 툴이다. LibraryThing의 폭소노미를 희망하는 도서관들은 LibraryThing에 가입한 후 도서관의 소장정보(ISBN, 표제, 저자)를 LTFL을 통해 자동 반출하는데, 이때 소장자료에 대한 폭소노미 정보를 LibraryThing에서 가지고 있을 경우 이들 데이터(폭소노미)를 LTFL을 통해 반입받을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LibraryThing으로부터 제공받은 태그 정보를 Java script를 이용하여 해당 레코드에 직접 삽입함으로써 서지정보와 더불어 폭소노미 태그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LibraryThing For Libraries," 〈http://www.librarything.com/forlibraries/about〉 [cited 2009. 10. 19]). 현재 LTFL을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LibraryThing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비율이 도서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5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소장자료 중 단행본 자료,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 폭소노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7) 도서관시스템은 콘소시엄의 개별 회원도서관이나 분관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광역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단위도서관의 수로 환산하면 2009년 10월 현재 미국 내의 1,512개 도서관들이 LTFL을 사용하고 있다.

28) "SOPAC," 〈http://drupal.org/project/sopac〉 [cited 2009. 10. 21].

29) Luiz H. Mendes, Jennie Quinonez-Skinner & Danielle Skaggs, "Subjecting the catalog to tagging," *Library Hi Tech*, Vol.27, No.1(2009), p.31.

www.kci.go.kr

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폭소노미 태그에 대한 검색 및 검색 인터페이스의 문제이다. 현재 도서관 목록에 적용된 폭소노미는 OPAC의 일반적인 검색방식(저자, 표현, 주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였을 경우 해당 자료의 상세정보 화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OPAC에서의 직접적인 검색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태그 브라우저(tag browser)를 이용하여야만 폭소노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폭소노미를 적용한 도서관들은 서지정보(특히, 주제명)와 폭소노미 태그에 대한 '통합검색'이 지원될 때 폭소노미의 유용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규모의 경제' 논리도 폭소노미를 적용하고자 하는 도서관들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폭소노미는 이용자 개개인의 관점을 종합한 '집단적' 지적 능력에 의존하는 체제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집단 지성의 창출과 관련하여 규모의 측면에서 제약을 안고 있는 도서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30] 따라서 이용자집단의 규모가 적은 도서관에서 폭소노미의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폭소노미를 생성할 만큼 자신의 도서관이 충분한 규모의 이용자집단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고민해 볼 것을 충고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실제로 '규모의 경제' 논리는 많은 도서관들로 하여금 LTFL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면서, 또 다른 장애를 낳고 있다. 즉, LTFL을 도입한 도서관들의 경우, LibraryThing을 통해 생성된 상당한 규모의 폭소노미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태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가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폭소노미를 통해 자관 이용자들의 관심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LibraryThing에서 생성한 폭소노미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입장이므로 LibraryThing을 통해 폭소노미를 제공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 도서관 차원에서 별도로 폭소노미의 생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31]

3. 유용성 검증 노력과 제언

한편, 폭소노미의 도입이 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 있는 견해를 찾기 힘든 상태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폭소노미 태그가 문헌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탐색어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폭소노미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령, 폭소노미 태그가 기

30)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집단의 지적 능력"으로써 뛰어난 한 개인보다 집단이 힘을 발휘할 때 더 우수한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이나 편견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 조정되고, 개개인의 다양한 사고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최선의 합의에 이른다는 것이 집단지성의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폭소노미 태그의 생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31) Jezmynne Westcott, Alexandra Chappell & Candance Lebel, "LibraryThing For Libraries at Claremont," *Library Hi Tech*, Vol.27, No.1(2009), pp.78-81.

www.kci.go.kr

존의 주제명표목(LCSH, MeSH 등)과 형식과 내용에 있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한 후 두 도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폭소노미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집단에 대한 성향과 행태 분석을 통해 폭소노미의 유용성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검증하려는 연구도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로는 Wetterstrom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20명의 실험집단으로 하여금 자신이 제시한 문헌에 대한 폭소노미 태그를 생성하게 한 후 그렇게 생성된 태그를 기존의 주제명표목인 LCSH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LCSH와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폭소노미 태그의 비율이 약 25%인 반면, 폭소노미 태그에서만 발견된 용어의 구성 비율이 약 75%를 차지함을 밝혀내었다.[32]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폭소노미 태그에는 일상적 용어나 사서들의 주제어에 비해 훨씬 광의의 혹은 협의의 개념을 갖는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Wetterstrom은 폭소노미 태그에 수록된 데이터가 기존 도서관목록의 주제 데이터를 충분히 보완할 정도로 유용하다고 결론짓고 있다.[33]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Rolla가 LibraryThing의 폭소노미 태그와 OCLC WorldCat의 서지레코드를 직접 비교하면서 폭소노미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 시도가 있다.[34] Wetterstrom의 연구가 실험집단을 선정하여 '인위적으로' 생성된 폭소노미 태그를 분석에 활용하였다면, Rolla의 연구는 실제 이용자들이 생성한 폭소노미 태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이다. Rolla가 자신의 실험에서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주제어의 '양적' 차이였다. 사서들이 생성한 주제명표목은 서지레코드 당 평균 3.80개에 불과하였으나, 이용자들이 생성한 폭소노미 태그는 평균 42.78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35] 이러한 양적 차이에 더해, Rolla는 사서들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주제적 개념들이 폭소노미 태그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폭소노미 태그가 질적으로도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거

32) Mikael Wetterstrom, "The complementarity of Tags and LCSH : a tagging experiment and investigation into added value in a New Zealand library context," *The New Zealand Library &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Vol.50, No.4(2008), pp.296-310. 이와 유사한 조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RISS의 '내서재'의 태그를 분석한 조재인은 태그 부여자의 목적, 의지, 감정, 행동 등이 반영된 태그를 제외한 978건의 태그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과 일치하는 비율이 53.8%, 그렇지 않은 비율이 46.2%였다고 밝혔다(조재인, 앞의 글, p.106).

33) 이 연구는 실험집단으로 하여금 제시된 자료에 대한 '주제어'를 태깅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생성된 태그는 대부분 자료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되는 폭소노미 태그에는 주제와 관련 없는 용어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4) Peter J. Rolla, "User Tags versus Subject Headings : can user-supplied data improve subject access to library collection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53, No.3(2009), pp.174-184.

35) 폭소노미 태그는 둘 이상의 단어가 연결된 '태그구름'(tag cloud)으로, 그리고 주제명표목은 전조합의 열로 구성된 '주제열'(subject string)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Rolla는 이러한 주제열과 태그구름을 구성하는 용어들을 분리하여 각각 1개의 용어로 간주하더라도, 주제명표목은 레코드당 평균 9.99개, 그리고 폭소노미 태그는 45.42개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www.kci.go.kr

나 지극히 개인적인 데이터[36] 또한 폭소노미 태그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내면서 도서관 목록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lla의 결론은 유용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폭소노미 태그가 '이용자 친화적'이기 때문에 사서들이 제시한 주제어보다 이용자들이 문헌을 탐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Wetterstrom과 Rolla의 연구가 폭소노미 태그의 '상대적' 유용성을 분석하고 있다면, 폭소노미 태그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절대적' 유용성을 밝혀내고자 시도한 연구도 있다. Golder와 Huberman은 Delicious의 폭소노미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4일 동안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폭소노미 태그를 〈표 1〉에서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37] 그들의 분석 결과, 폭소노미 태그에는 문헌의 내용이나 형태와 관련되어 '주제어'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적 용도나 행위 등과 같이 해당 태그를 생성한 특정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절대적 유용성을 가늠하고자 했던 유사한 연구는 Munk와 Mørk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그들은 Delicious의 7만여 폭소노미 태그를 분석하였는데, 그들의 분석 결과 또한 Golder와 Huberman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38] 그러나 태그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나 기호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제어'로 활용할 수 있는 태그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광의의 용어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탐색도구로서의 유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었음을 그들은 밝히고 있다.[39]

〈표 1〉 폭소노미 태그 자체에 대한 분석 결과

Golder & Huberman		Munk & Mønk	
주제	콘텐츠의 내용(주제)	주제	콘텐츠의 내용(주제)
대상	콘텐츠의 유형	자료유형	콘텐츠의 유형
소유	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작성자	용도	콘텐츠의 이용목적
한정어	다른 데이터와 함께 제시되는 부가적 데이터(숫자나 특수문자 등)	시대	콘텐츠와 관련된 시대나 시기
느낌	콘텐츠에 대한 느낌(감정)이나 견해	행위나 상황	콘텐츠와 관련된 개인적 행위나 소유/대출(접근성) 여부
자기참조	태그 생성자의 개인적 용도	느낌	콘텐츠에 대한 느낌이나 견해
관련업무	행위에 따른 콘텐츠의 분류	의미 없는 내용	의미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문자나 기호

36) Rolla는 폭소노미 태그를 다른 사람의 정보탐색에 도움이 되는 공적 데이터(endo-tagging)와 태그를 생성한 본인에게만 의미를 가지는 개인적 데이터(exo-tagging)를 구분하였다. 이 중 '개인적 데이터'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best summarize", "important topics" 등 문헌의 내용에 대한 직관적 용어들과 "funny", "scary", "interesting" 등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들, 그리고 "to be read", "read" 등 개인적 행위에 대한 용어 등이 있었다.

37) Scott A. Golder & Bernardo A. Huberman, "Usage patterns of collaborative tagging system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2, No.2(2006), p.203.

38) Timme Bisgaard Munk & Kristian Mørk, "Folksonomy, the power low and the significance of the least effort," *Knowledge Organization*, Vol.34, No.1(2007), pp.16-33.

39) Munk와 Mønk는 폭소노미 태그에 사용된 용어의 특정성(specificity)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령, '치타'에 관한 자료에 대해 이용자들이 '동물', '생물' 또는 '고양이과' 등과 같은 태그를 부여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용어들이 정보탐색에 얼마나 유용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www.kci.go.kr

한편, 폭소노미 태그의 유용성을 가늠하고자 하는 또 다른 유형의 연구는 '이용자 집단의 용어 사용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Spiteri는 Delicious, Furl, Technorati와 같은 대중적인 소셜 북마킹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폭소노미 태그에 반영된 이용자들의 용어 사용 행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40] Spiteri는 특히 폭소노미 태그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에 무게를 두었는데, 동일한 주제 개념이 이용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용어의 다의성(하나의 용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과 유의성(하나의 의미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에 관련된 문제는 물론이고, 용어의 단·복수나 대소문자, 약어, 문법적으로 상이한 어형(명사·동사·동명서·명사구) 등과 같이 표현의 비일관성에 관한 문제를 드러내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그는 도서관목록에 폭소노미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이나 표현 형식 등에 각별한 유의가 따라야 함을 충고하고 있다.

이처럼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실시했던 여러 연구들은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폭소노미 태그가 탐색도구로서 반드시 유용한 것만은 아니며, 특히 주제 접근을 위한 '질적' 향상을 담보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호하고(ambiguous)", "지극히 개인적이며(overly personal)", "부정확한(inexact)" 데이터가 폭소노미 태그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들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41]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폭소노미의 '거친' 속내를 들여다본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폭소노미를 도서관목록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데이터의 질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폭소노미의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기존의 주제명표목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도서관환경에서 이용자서비스 증진을 위해 향후 폭소노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Ⅳ. 한국 도서관계의 고민과 과제

현대적 개념의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6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도서관은 수적 증가와 업무 전산화를 통해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가

40) Spiteri Louise F, "The structure and form of folksonomy tags : the road to the public library catalogue,"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ies*, Vol.26, No.3(2007), pp.13-25.

41) 가령, 시대구분과 관련한 free-floating subdivision을 사용한 LCSH에서는 "Algeria-History-Revolution, 1954-1962"와 같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시대구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생성한 폭소노미에는 "1950s", "1960s", "20th century", "pre-1983", "post war" 등과 같이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www.kci.go.kr

기능과 품질 면에서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근자에도 도서관서비스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거론되는 것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 실무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문헌정보학의 연구가 양이나 질에 있어 부실한 것 같지는 않다. 매년 수백편의 연구물이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연구의 테마 또한 도서관선진국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서관 현장이 이용자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과제들을 잔뜩 안고 있는 것을 보면, 수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현장의 업무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한 불일치, 즉, 우리 강단의 연구 테마와 우리 현장의 당면 과제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학문도 현장도 건강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근자에 폭소노미를 둘러싸고 증대되고 있는 우리 학계의 관심과 일부 도서관들의 적용을 바라보면, 우리 도서관 환경의 후진성과 우리 도서관목록의 낙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함이 느껴진다. 나아가, 우리 도서관 문화의 고유성과 토착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조차 생략한 채 도서관선진국의 유행을 서둘러 도입하여 유포하고자 했던 전래의 잘못된 관행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우리 도서관 현실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기피하고, 도서관선진국의 이론과 방법에 몰입하여 그들을 추수하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도서관 문화를 주체적이고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 폭소노미 또한 그 원리가 아무리 그럴 듯하고 매혹적이라 하더라도 실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우리의 도서관 실정에 적합한 접근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우리 도서관계 주변을 겉도는 또 하나의 모양새를 추수하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앞서 2장과 3장의 논의를 통해 폭소노미에 대한 북미 도서관계의 입장과 경험을 세세히 소개한 까닭은 폭소노미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도서관의 실정에 보다 적합한 폭소노미에 대한 접근 및 수용 방법을 강구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폭소노미에 대한 소개와 연구는 이미 2006년부터 자료조직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고, 그 결과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유포되어 있다. 실제로 일부 도서관에서는 2006년부터 이미 폭소노미의 개념을 받아들여 그들의 목록에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선도 도서관들이 지금까지 한국 도서관계의 업무와 관련된 기능적 변화를 주도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우리 도서관계 전체에 폭소노미의 적용을 둘러싼 파장이 불어 닥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도서관 현실의 기반에서 폭소노미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논의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에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북미 도서관계의 폭소노미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소노미의 적용과 관련한 북미 도서관계의 입장에는 두 가지 논리가 공존하고 있

www.kci.go.kr

다. 기존의 도서관목록이 가진 한계(특히, 주제데이터)를 폭소노미 태그를 통해 단순히 보완하자는 견해와 폭소노미 태그에 반영된 이용자의 관점을 분석하여 편목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목록을 이용자 중심적 목록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들이 연구를 통해, LCSH와 폭소노미 태그를 직접 비교하거나, LCSH의 용어로 표현된 사서의 관점과 폭소노미 태그에 반영된 이용자의 관점이 서로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세밀하게 분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폭소노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폭소노미의 적용을 통해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우리 학계와 도서관계에서의 폭소노미에 대한 관심은 그들과는 사뭇 다른 선상에 놓여있다. 연구자들의 관점은 기존하는 도서관목록의 기능과 품질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폭소노미에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제어를 대체할 가능성을 폭소노미에서 찾고자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폭소노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에서 제기되어야 할 기본적인 연구문제들, 가령, "우리 도서관계의 업무관행은 폭소노미를 적용할만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혹은 "폭소노미의 원리가 우리 도서관목록의 태생적 한계(주제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과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질의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생략하고 있다. 심지어 폭소노미의 등장 배경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조차 건너뛴 채, 폭소노미의 외형을 우리의 시스템에 적용하는 실험적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 현장에서의 적용 과정에서도 우리 도서관들의 행태는 북미 도서관들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폭소노미의 적용을 시도했던 북미의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이용자 참여'에 관한 것이었다. 폭소노미는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태그의 집합체이므로 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폭소노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북미에서도 도서관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폭소노미 태그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은 여러 도서관들이 폭소노미의 적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폭소노미에 참여할 '이용자 집단의 규모와 수준'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단독으로 보다는 도서관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폭소노미를 구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폭소노미를 적용하는 우리 도서관들의 실정은 어떠한가? 개별적인 적용이 대세이고, 도서관이용자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적용에 앞서 시행되고 있다는 증좌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우리 도서관들의 성급한 적용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는 생성된 폭소노미의 수를 파악해 비교해 본 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폭소노미를 적용한 두 대학도서관에서 생성된 태그의 수는 각각 서지레코드 당 평균 1.6개와 1.1개에 불과하였다.[42] 특히, 이 연구에서

42) 이성숙, 정서영, "국내 도서관 폭소노미 태그의 일반적 패턴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1호(2009. 3), p.142.

www.kci.go.kr

조사 대상으로 삼은 도서관들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대학도서관이고 두 도서관 모두 1년 이상 폭소노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폭소노미에 대한 우리 도서관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는 북미 도서관계에서 폭소노미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이 사회 구성원에 기반한 문화적 산물인 것처럼 우리 도서관이용자들이 북미의 도서관이용자들과 정보행태에서 다르다면 그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우리에게도 유용하리라는 전제는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폭소노미의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학계와 도서관계에서 무엇보다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록이 주제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폭소노미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목록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사서의 전문성의 관점에서 타당한 시도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북미 도서관들에서는 단단한 통제어휘 체계를 이용하여 주제목록을 작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의한 주제접근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그 부족분을 폭소노미의 적용을 통해 보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주제어가 가진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통제어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통제어인 폭소노미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문헌에 대한 주제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제목록 자체가 부재하거나 부실한 우리 도서관의 실정에서 폭소노미의 무분별한 도입과 주제 접근을 위한 활용은 기존의 목록이 그나마 유지해오던 정체성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정체불명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우리 사서직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도 폭소노미의 '무분별한' 도입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편목업무의 아웃소싱 확대로 인해 사서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폭소노미의 무분별한 도입은 편목업무의 전문성 훼손은 물론이고 자료조직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무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외부에서 생산한 서지데이터를 받아들여 목록의 기초 데이터를 채우고, 이용자들이 생성한 폭소노미를 통해 목록의 주제 데이터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편목업무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잃을 것이고, 문헌정보학에서 편목 영역은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성을 점차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폭소노미의 성급한 소개와 적용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폭소노미의 적용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영향을 폭넓고 철저히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의 도서관 환경에서도 폭소노미의 적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고 입증된다면,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폭소노미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생소한 우리 이용자집단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가 생성한 폭소노미 태그의 품질을 관리하여 탐색어로서 기능을 높일 수 있는

www.kci.go.kr

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도구에 대한 개발이 따라야 할 것이다.[43]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단위 도서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협력체제에 기반하여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비용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토양에 맞게 연착륙할 수 있다면, 폭소노미의 적용은 실로 우리 도서관계의 업무 개선을 위해 무한한 잠재성을 갖게 될 것이다. 가령, 기존의 주제어(통제어휘)를 보강하기 위한 장치로서 폭소노미 태그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용자들의 관심과 요구를 파악하여 장서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사서들은 시스템의 효율적 가동을 위한 많은 사전 작업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한다. 미시적으로는 이용자들이 만든 태그를 통제어휘로 자동 변환시키는 장치 등을 개발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폭소노미 태그에 대한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전담함으로써 목록시스템의 전반적인 품질을 유지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실험과 논의를 거쳐 유용성이 입증된 후에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적용을 실천해 갈 수 있다면, 폭소노미는 우리의 열악한 목록체계를 단숨에 혁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Ⅴ. 논의를 마치며

문헌정보학계의 폭소노미에 대한 관심은 정보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행태로부터 촉발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행태를 도서관에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이 문헌정보학계에서 처음으로 폭소노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였다. 폭소노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도서관에서의 폭소노미 적용이 단순히 '개인화 서비스' 차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연구진도 있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유용한 정보에 개인적인 태그를 부여하고, 이를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폭소노미의 적용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되었던 폭소노미는 현재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들이 생성한 폭소노미 태그를 편목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이를 검색에도 직접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개인적 용도로만 폭소노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요인들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용어의 사용이나 표현의 일관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최근 주요 관심거리로 떠오르면서, 문헌정보학계 내에서는 폭소노미와 관련한 학

43) 이와 관련하여, Pentags이나 LibraryThing 등과 같이 '태그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자주 사용되는 태그'나 '동의어 사전', '사용주기(SN)'와 같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폭소노미의 생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www.kci.go.kr

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폭소노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 학문들과 비교하면서,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 폭소노미의 유용성을 분석하거나 일반적인 소셜 북마킹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도서관서비스'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최근 논의의 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폭소노미 태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폭소노미와 관련된 '이용자 행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문헌정보학 연구진들 사이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44] 가령, Moulaison은 폭소노미와 관련하여 문헌정보학만의 고유한 연구 영역은 '이용자'에 있으며, 이용자에 주목할 때 비로소 폭소노미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적실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45] 이외에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폭소노미의 생성과 이용, 공유 과정을 세밀히 조사하고, 폭소노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깅 행태와 폭소노미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영향력 등에 대한 분석이 문헌정보학계 내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 도서관계에서 폭소노미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러한 연구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부여한 키워드들의 집합이 폭소노미라는 점에서 볼 때,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은 폭소노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소노미와 관련한 논의의 출발점이 '우리' 그리고 '이용자'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특정 용어에 반영된 이들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할 때, 폭소노미와 관련된 적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목록이 우리 도서관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지적 도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글에서의 논의가 폭소노미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폭소노미와 관련하여 우리 학계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44) 폭소노미의 생성이나 이용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용자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연령, 인종, 학력, 성별 등에 따른 뚜렷한 특징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된 바로는, 이용자 1인이 생성한 폭소노미 태그의 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소수의 이용자들이 다수의 태그를 생성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 정도이다. 더불어, 동일한 관심을 가진 집단에서 동일한 태그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일부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폭소노미 태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추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왜 폭소노미의 생성과 이용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Scott A. Golder & Bernardo A. Huberman, op.cit. ; Cecile E. Bianco, "Medical librarians' uses and perceptions of social tagging," *Journal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97, No.2(2009), p.136에서 재인용].

45) Heather Lea Moulaison, "Social tagging in the web 2.0 environment : author vs. user tagging," *Journal of Library Metadata*, Vol.8, No.2(2008), p.108.

www.kci.go.kr